

수공간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Water Spaces

민영기* 이재국**

Min, Young-Gi Lee, Jae-Kook

Abstract

Water plays significant roles in constructing architectural structures. This is because a comfortable human life is impossible without proper distribution of water. Here the notion of water space is introduced in the field of the modern architecture.

This study examines the typological variations of water space in the outdoor space of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concludes the contents discussed.

Unlike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modern architecture takes the types of water into account. And in the modern architecture the multiple considerations of water space are being made for the public, not for the specific customers.

키워드 : 수공간, 물, 연못, 개울, 폭포, 샘

Keywords : Water Spaces, Water, pond, Stream, Waterfall, Fountai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물을 건축공간에 도입하여 활용한 예는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의 자연적 환경 즉, 자연친화적인 면에서의 물의 도입에 관한 고찰은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단지 조경분야에서 다루는 환경과 조경이라는 측면에서 도시 내·외의 공원을 중심으로 한 수공간이라든가 또는 가로에서의 자연을 표현하기 위한 수공간의 도입, 특정시설에서 건축의 일부분으로서 수공간 도입 등에 관한 것이 연구의 주를 이룬다.

자연친화적 경향에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요소로는 물(水)과 나무(木)로 볼 수 있다. 또한 물과 나무는 조경의 기본요소이기도 하다. 현재의 도시로 끌어들이는 주된 요소는 형태가 있고 자생력이 있는 나무이고, 형태가 없어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물은 부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삭막해지고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 속에 예전의 의미처럼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을 끌어들이 건축과 하나가 된다면 생명이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건축환경의 계획에서의 물은 위생설비의 생활용수와 냉난방설비용수의 측면에서 주로 취급되며 물이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관 및 심리적 효과는 무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성과 자각의 태도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자연환경을 도시 속에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건축 외부공간에서의 수공간 변천에 관한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의미 및 유형 등을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도시공간에 자연의 대표적 요소인 물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보다 활기 있고 쾌적한 건축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공간은 지붕으로 덮히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외부공간의 의미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통건축에 있어서의 외부공간은 그 테두리가 자연이라는 포괄적인 것이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테두리가 자연보다는 한정된 자연에서의 건축으로 된다는 것이다. 외부공간의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그 곳에 존재하는 수공간에서의 물의 상태와 표현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를 본 장에서는 외부공간의 의미 변화와 이에

* 서일대학 건축과 겸임교수, 정회원

** 서일대학 건축과 부교수, 정회원

다른 수공간의 형태 변화로 분류하여 그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외부공간의 의미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 왔고, 건물내에서 창과 문만 열면 볼 수 있는 공간이 모두 외부가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건축에서의 외부공간은 자연이라 할 수 있다.

전통건축에도 물론 내부와 외부라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의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내부와 외부라는 것이 하나의 공간 체계속에 있어서 연속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전통건축의 주된 구조가 목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의 한계성으로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 졌다. 즉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작업을 하는 등의 주된 공간인 외부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¹⁾

우리나라는 구릉이 많은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작은 규모의 건축으로도 우수한 외부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더불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우리 조상의 태도에 의해 전통건축에서는 외부공간이 우수한 디자인 요소가 되었고, 이런 점에서 전통건축의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연 자체로서의 외부공간이다.

전통건축에 있어서 건축과 주변의 자연환경이 유기적으로 잘 융화되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건축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는 당연히 여기에 조화되는 건축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축도 대자연의 일부로 본 것이다.

이러한 외부공간의 개념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의 자연이라는 외부공간이 최근의 건축이라는 테두리로 그 범위가 한정되고 축소된 것이다. 도시속에서 건물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자연을 축소시켜 가까이 하려 하였고, 도시공간으로 끌어들여 각가지 형태의 표현된 자연을 그 크기가 별로 크지 않다.

과거 자연으로서의 외부공간은 현재에 와서 도시속의 공간 혹은 건물외부공간으로 의미의 변화가 있으며, 도시속에서 외부공간이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고 남은 잔여공간이 아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도시에서 건축의 외부공간과 그 존재형태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²⁾

표 1. 건축외부공간의 분류

건축외부공간	존재형태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	광장·중정
건물의 벽과 벽에 쌓인 공간	중정·dry area
건물의 후퇴공간	전정(前庭)
건물에 덮혀진 공간	필로티
지반보다 낮은 공간	인공연못

즉 건축외부공간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필로티, 연못, 분수, 광장, 중정, 전정, 가로수, 레벌차, 조각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분류된 외부공간은 크게 공적외부영역과 사적외부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용주체가 대중 즉, 불특정다수인이면 그 공간은 공적외부영역으로, 사용주체가 개인이나 특정인이면 그 공간은 사적외부영역으로 된다. 공적외부영역은 주로 도시의 광장이나 공원 등에서 볼 수 있고, 사적외부영역은 개인의 정원이나 중정, 선큰(sunken) 등에서 볼 수 있다.

2.2 수공간의 의미와 유형

건축에서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다양한 유형의 표현이 있으며, 그 하나의 방법으로 물의 쓰임이 있다. 이러한 물의 쓰임이 외부공간에서 존재하였을 때 그것은 건축외부 수공간으로 본다. 최근의 건축공간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공간은 건축외부공간에서이며, 그 성격도 경관적인 것이 주가 된다. 자연을 도입한다는 사고에서 건물의 외부에 물을 도입함으로써 물의 중요도와 적합성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부에서도 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계절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사용이 다소 자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고층의 사무소 건물에서는 아트리움의 형태로 나무와 조화를 이루어 내부에 물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외부공간을 위주로 한 수공간의 형태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물가 혹은 수변공간을 들 수 있고, 도시속에서 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공간으로 광장이나 중정 형태의 공간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부공간의 사적외부영역과 공적외부영역의 개념에서 볼 때 정원, 중정 등은 사적외부영역이 되는 것이고, 광장, 도시의 공원, 자연 등은 공적외부영역이 된다. 표현되는 수공간의 크기도 일반적으로 사적

1)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이상건축 94년 1월호, p44-47

2)外部空間과 造景디테일 <計劃方法을 研究>, 기술문화사, 1982년, pp11-13

영역에서는 작은 규모이고, 공적영역에서는 대규모의 공간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수공간에 이용되는 물의 형태도 차이가 있다.

수공간의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과거에는 이용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모든 기능이 하나로 된 공간으로 그 곳에서 먹고 씻고 또한 물가에 앉아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다양한 의미에서 수공간이었다.

이런 외부공간에서의 물의 쓰임이 현재로 오면서 인공적으로 형성해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그 의미도 분화되어 기능적인 면에서도 식수나 용수의 이용이라는 역할보다는 휴식과 경관요소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수공간의 의미가 변하는 것과 같이 수공간의 유형도 전통건축에서와 현재의 도시 속에서 그것의 사용주체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사용목적에 따라서도 변화되었다. 또한 건축의 내부와 외부공간에서 물의 상태에 따른 변화도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었다.

물의 이용 형태는 경관적 심미적 효과를 얻기 위해 외부공간은 자연적인 물의 형태나 인위적인 물의 형태를 적절히 사용하게 된다. 자연의 순리에 부합하는 평정수(平靜水), 유수(流水), 낙수(落水)의 자연적인 형태와 중력에 반대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나타나는 분수(噴水)의 인위적인 형태로 이용된다.

오늘날 도시의 건축공간에서 도입되는 수공간의 형태는 어느 하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없다. 인공의 분수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기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고,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하고 있다. 물론 우리 주변의 한강과 같은 자연의 수공간을 인공적인 수공간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도시의 수공간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잘 조화를 이루어 표현되어야 그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건축외부수공간의 형태와 물의 이용형태의 변화를 사례를 통해 수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도시속에서 존재하는 수공간의 형태적 변화를 파악하여 본다.

3. 사례를 통한 수공간의 분석

건축공간에 도입되는 물은 전통건축에서는 하나의 형태로 표현이 되었는데 현대 도시속에서의 물은 그 형태가 하나로는 완성이 되지 못하고, 기능에 따라각기 다른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수공간의 유형과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수공간 유형과 의미를 현재 존재가 확인되는 수공간 중에서 물이 주요소가 되는 곳을 몇가지 정해 조사 분석하기로 한다.

사례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화되는 물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전통건축과 도시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본격화가 된 1980년대와, 그리고 지나친 도시화의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식민지, 6.25 등의 시대적 상황이 지배적이던 1910년대부터 1960년대도 물론 건축계에서는 변화가 있었고, 발전의 노력이 있었지만 다양한 형태의 수공간 표현 등이 연구되고 설계되지 못했으므로 간단히 언급만 하기로 한다.

3.1 전통건축에 있어서의 수공간

오랜 옛날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물(水)이라는 자연 요소는 천지(天地)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동시에 우리 생활에 쾌적성을 주는 환경적 요소인 것이다.

이런 물의 쓰임은 과거 사회의 초기에는 이용(利用)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물과의 친화라는 개념이 강해지면서 인위적인 수공간이 발생한다. 전통건축에서의 인공수공간은 주로 연못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인위적인 것이지만 대단히 자연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공간도 전통건축에서는 내부보다는 외부가 주(主)가 되었고, 그 형태와 의미도 사용계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수공간이 주로 존재하는 외부공간은 건물의 대지영역 내에서와 외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건물의 대지영역 내에서의 수공간은 그 대상이 주로 개인이고 그 의미도 보기 위함과 여유를 즐기는 것이다. 반대로 대지영역 외에서의 수공간은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된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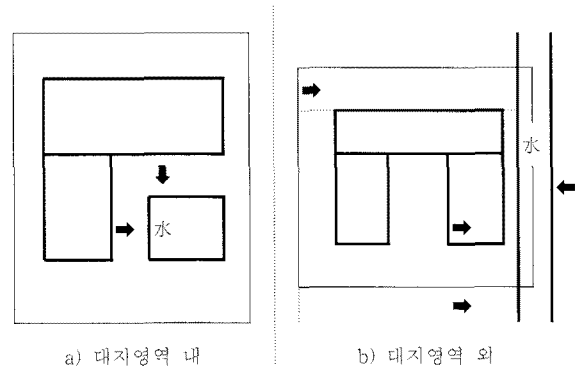


그림 1. 대지영역의 내·외에서의 수공간 (→:보는 시각)

전통건축에서 수공간은 현대와 같이 정원, 광장, 도시라는 인위적인 외부공간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외부공간 즉,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외부공간으로서 자연과 하나라는 개념의 전통사상이 담겨져 있다.

단순히 이용의 목적이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예술적이고 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정원에서 물이 사용되게 되었다. 정원을 꾸미는 기본 원리는 자연과 순화하여 자연과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기본으로 터를 잡고 건물을 세우고 정원을 꾸미고 수공간을 도입한 것이다.

물을 도입함에 있어 그 원리는 자연의 물이 흐르고, 고이고, 넘치는 것을 적용한 것으로 연못이나 폭포를 만들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물의 형태는 하늘을 거역한다는 사고에 의해 사용이 거의 없었던 형태라고 한다.

또한 공간에 물을 사용할 때 단순히 물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에 어울리는 돌과 나무를 적절히 배치하여 사용되었다.

전통건축의 대표적인 수공간의 배치는 용도에 따라 바탕이 되는 사상이 있다. 바탕이 되는 사상은 표 4.3과 같다.³⁾

표 2. 전통건축 조원(造苑)의 지배사상

대표적 건물	지배적인 사상	기본적인 사상
궁궐 건축	풍수지리·음양오행	자연과 조화 자연의 경외(敬畏)
사찰 건축	정토(淨土)사상	
서원·별서 건축	은둔(隱遁)사상	

수공간의 형태는 주로 방지(方池)와 계류(溪流)였고, 그 주위에 정자나 누각이 세워져 그 수공간의 성격은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찰건축에서의 방지는 영지(影池)라고 하여 전설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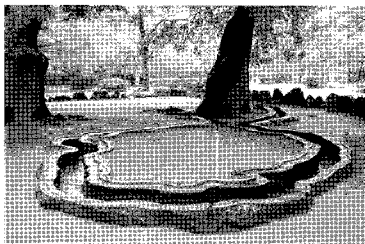


그림 2. 포석정 (9세기)

신라시대의 수공간인 포석정은 그 형태는 곡선적이고, 유수를 담아 형성된 공간으로 직접 즐기는 기능의 수공간으로 대표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접하고 볼 수 있는 방지는 평정수의 형태이고, 조선시대 초엽 이후에 많이 나타난 것으로 이것은 유교와 주자학의 전래에서 영향을 받은 형태이다.⁴⁾

궁궐의 수공간, 민가의 수공간, 별서의 수공간 등 여러 가지의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전통건축 중에서 확실한 수

공간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만을 조사하기로 한다.

3.2 안압지(雁鴨池, 674)

안압지(雁鴨池)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대표적인 수공간이다. 이는 궁궐에 있는 수공간으로 못 안에 섬을 만든 것, 호수 옆에 태자를 위한 동궁을 세운 것, 왕실의 유희처로 삼은 것 등으로 미루어 백제의 궁남지를 모티브로 한 것 같다.⁵⁾ 문헌에 의하면 안압지는 서쪽에는 정공과 동쪽에는 동궁을 둔 완벽하게 인공적인 왕실의 정원이었다.

3.2.1 수공간의 유형

안압지의 수공간은 땅을 파내어 물을 채운 것으로 인위적이다. 그러나 수공간의 형상은 서쪽은 직선적인 요소를, 동쪽은 곡선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특정한 형태를 없다.

궁궐의 외부공간에 위치하는 수공간으로 그 면적은 대략 15635㎡로 못 안에 3개의 섬을 가진 형상으로 3개의 섬은 경관요소일 뿐 아니라 적절한 유속을 만들어 연못의 물이 고여 썩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3.2.2 수공간의 의미

이 수공간의 의미는 바라보는 기능과 유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이다. 직선의 서쪽에서는 바라보는 것, 동쪽의 곡선에서는 직접 거닐면서 즐기는 것이다.

물의 이용형태는 평정수로 잔잔한 수면과 주변의 산세를 통해 편안함, 한가로움 등을 느낄 수 있다.

이 공간은 물과의 친화라는 개념이 잘 나타난 것으로 대표적인 공간이다.

3.3 창덕궁 비원(昌德宮, 1908)

수공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창덕궁(昌德宮)의 비원(秘苑)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조원(造苑)양식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외부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공간으로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수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비원(秘苑)은 수공간에 의해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부용지(芙蓉池)를 시작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애련지(愛蓮池)가 있고, 반월지(半月池)와 반도지(半島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옥류천(玉流川)이 있다⁶⁾.

이는 주변이 산세라는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조원한 것으로 그림 3.은 수공간의 위치를 지형의 흐름에 따

3)정재훈, 한국의 옛 조경, 대원사, 1993년, p12

4)李揆樞, 한국전통경관속의 물-방지와 계류, 건축문화 9007, p86

5)고경희, 雁鴨池, 대원사, 1989년, p11

6)金奉烈, 韓國의 建築-전통건축편, 공간사, 1994년, p40.

라 나타낸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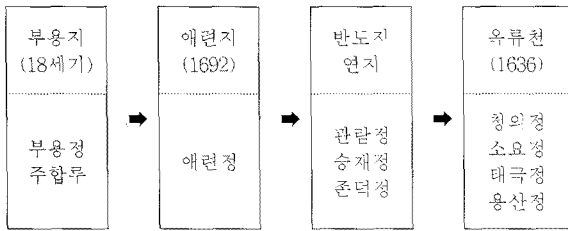


그림 3. 비원(秘苑)의 수공간

3.3.1 부용지(芙蓉池)

① 수공간의 유형

유형은 외부공간에 위치한 수공간으로 형태는 매우 인공적인 직선에 가깝다. 장방형의 형태로 그 크기는 대략 34.5×29.4m이다. 외부공간에 위치한 수공간으로 비원(秘苑)의 여러 수공간 중에서 가장 인공적인 성향을 보이는 곳이다.

이 공간의 주변에는 부용정(芙蓉亭)과 주합루(宙合樓), 그리고 어수문(魚水門)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축선상에 위치하는 공간이다.

② 수공간의 의미

이 공간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의미는 나무와 물이 주는 평화로움과, 축이 주는 향천적(向天的)인 상징성이다. 수공간 주변을 거닐면서 물에 비친 나무를 즐기는 공간인 것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지(方池)로 그 용기 안에는 평정수를 담고 있어 잔잔한 수면이 이루어지며 주변의 공간도 같이 잔잔해진다.

3.3.2 애련지(愛蓮池)

① 수공간의 유형

부용지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서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수공간은 애련지(愛蓮池)이다. 그 수공간은 외부공간에 위치한 것으로 정방형의 형태로 그 크기는 대략 26.2×26.2m이다. 애련지 내의 애련정(愛蓮亭)은 그 기둥이 물 속에 있는 수상공간으로 물에 비치는 정자의 모습이 마치 배와 같은 형상을 보인다.

② 수공간의 의미

이 공간에는 평정수의 물이 담겨 그 의미는 부용지와 같은 편안함과 한가로움으로 이것은 물의 심리적 특성중 하나인 쾌적함을 보여주는 곳이다.

3.3.3 반도지(半島池)

① 수공간의 유형

이곳을 지나 남북으로 긴 계곡이 전개된다. 계곡의 입구에는 반도지(半島池)가 위치하며, 반도지(半島池)의 크기는 그 형태가 부정형이라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다.

주변의 관람정(觀纜亭)과 승재정(勝在亭)은 물가에 있는 수변공간이다. 반도지(半島池)의 북단에는 또한 연못인 반월지(半月池)가 있다.

② 수공간의 의미

자유로운 곡선의 형태로 조성된 연못으로 주변을 거닐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3.3.4 옥류천(玉流川)

① 수공간의 유형

울창한 숲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비원(秘苑)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옥류천(玉流川)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공적인 공간이지만 그 형태는 계류로 자연적인 모습이다. 이 주변에는 계류(溪流)·정자(亭子)·어정(御井)·석교(石橋)·암반(巖盤)·폭포(瀑布)·수림(樹林) 등이 한데 어울려 흐르는 물이 있는 정원을 만든 것이다.

② 수공간의 의미

옥류천(玉流川)은 유수이기 때문에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울창한 수림속에 위치한 정자에 앉아 들을 수 있는 물소리는 사람의 청각적 감각을 자극하기 충분한 것이며, 과거의 수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청각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비원의 수공간의 위치적인 면에서 외부공간에 놓이며, 그 형태는 천원지방(天元地方)을 기본으로 한 방향의 연못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천원지방」이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 주변에는 정자가 만들어져 수공간 주변의 나무와 경관을 바라보게 하였다. 수공간과 정자의 조화는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 볼 수 있으며, 자연속에 존재함으로 볼 수 있다. 비원의 수공간은 대부분이 정적인 공간이고 바라보며 사색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3.4 독락당(獨樂堂)의 계정(溪亭, 16세기)

3.4.1 수공간의 유형

독락당의 계정은 냇가의 한적한 곳에 세워졌고, 암반을 기초로 한다. 물가에 위치한 수변공간으로 대지 영역내와 외의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수공간은 방지와는 달리 유수인 계류의 형태로 다른 수공간보다 더 자연과 가까운 표현으로 본다. 유수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즐기는 우리 조상의 태도를 알 수 있다.

3.4.2 수공간의 의미

이 수공간의 의미는 바라보며 즐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독락당의 계정에 앉아서 창을 열면 계류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잔잔한 물의 흐름을 보면서 사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독락당이 단순히 기거하는 주택이 아니고 수양을 하는 곳기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수공간이 필요

한 것이다. 또한, 시각적인 효과 외에도 청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물소리에 의해 내부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4. 결론

전통건축에서 외부공간에서 수공간의 유형 및 특성을 종합하면, 첫째, 수공간은 방지(方池)와 계류(溪流)가 조화를 이룬 것으로 인위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자연에서의 물 흐름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인공의 건물을 그 속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정원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둘째, 수공간은 평면적 구성으로 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물의 형태는 평정수와 유수를 주로 이용하였다.

셋째, 현대 건축공간에서의 수공간은 의미를 갖기 보다 관람이나 빈 공간을 채우는 목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전통건축에서의 수공간은 그 의미가 자연을 담고 있는 상징적이고, 오랜 세월을 걸쳐 이어져 온 관념적인 표현을 느낄 수 있다.

최근의 건축공간에서 표현되는 수공간은 대부분이 건물과 건물로 둘러싸인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며, 분수의 형태로 공간에 한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면, 시대의 여건에 맞추어 공간에 적합한 수공간의 표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外部空間과 造景디테일, 기술문화사, 1982
2. Gilbert F. White, 물의 역사, 최영박역, 중앙신서, 1978
3. Yoshinobu Ashihara, 建築의 外部空間, 기문당, 1991
4. 鈴木信宏, 수공간의 연출, 기문당, 1991
5. 이광배, 建築環境에서의 水空間 計劃技法에 關한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1985
6. 이정인, 수(水)요소가 건축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86
7. 박진성, 물이 전통마을과 건축의 좌향에 미친 영향, 국민대 석사논문, 1986
8. George Plumtre, The Water Garden, Thames & Hudson, 1993

(접수: 2007.10)